

■ 롯데백화점 광주점 - 대인시장 상생 첫 걸음

판매기법 전수하고 전기점검 봉사 “함께 갑시다”

‘지역상생연구회’ 발족... 각 분야별 재능기부 서비스 교육·주차장 개방 등 프로그램 확대

17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공구통을 든 사람들이 시장 점포 이곳 저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점포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또 전기, 소방시설 점검도 함께했다. 말쑥한 차림의 이들은 시장 상인들이 아니라 모두 인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

이러한 낯선 광경은 지역백화점과 재래시장이 ‘상생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상생연구회’를 꾸려 대인시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선 것.

이 날 전기·소방 시설 점검에 함께했던 박근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시설과장은 “대인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내가 가진 기술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명의 백화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상생연구회’는 매

주 자체 회의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대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고객맞이 자세와 불만고객 응대법, 위생·안전관리 등을 교육하고 상품진열·판매기법 등 백화점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전수한다.

특히 과학적인 진열방법과 위생관리, 소방·전기 안전 분야는 전통시장이 가장 취약했던 부분으로 상인들은 백화점의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인들이 회의나 각종 모임, 교육을 진행할 적당한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백화점 내 교육장과 회의실을 개방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백화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적극 장려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해 임직원 포상이나 백화점 사은품으로 증정할 방침이다.

또 상인 자녀 대상 장학금, 정기적인 건강검진, 영세상인 대상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보조한다. 백화점처럼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률적이지 못한 간판, 안내 사인을 통일감 있게 바꿀 예정이며 장바구니, 비닐 쇼핑백 등 전통시장 전용 포장물도 제작 지원해 고객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볼거리가 많은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대인시장 가요제’ ‘B-Boy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한다.

홍정희 대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은 “대인시장 상인들 대부분 대형 백화점이 지역 상권을 침체시킨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백화점측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보면서 현재는 불신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일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앞으로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을 찾아 동부소방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은행 자산 2000조 개인 대출이 ‘절반’

국내 은행 자산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제2금융권에서는 보험이 사실상 자산 700조원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은행 대출이 14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계 및 기업 부채도 급증해 명암이 교차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 총자산은 2031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1969조에 비해 62조3000억원이 늘었다.

2009년 말 1799조8000억원에 비하면 3년 새 200조원 이상 급증한 셈이다. 2010년 말에는 은행 자산이 1840조원이었다.

시중은행 중에는 지난해 말 KB국민은행이 자산 28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265조6000억원), 신한은행(254조원), 하나은행(168조1000억원), 외환은행(123조1000억원), 한국씨티은행(69조400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66조4000억원)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자

산 43조2000억원으로 최다였고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은행(206조5000억원), 기업은행(205조7000억원), 산업은행(167조1000억원)의 자산이 많은 편이었다.

2011년 말 자산이 566조1000원이었던 보험사는 지난해 말 699조 6000원까지 치솟았다.

중소·시민금융사 자산도 지난해 말 56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48조800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2011년 말 59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49조4천억원으로 줄었으나 농수산협조합이 279조8천억원에서 297조로 크게 늘었다.

대출을 의미하는 여신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총여신은 1390조여원으로 전년말의 1387조여원에 비해 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시중은행은 이 기간 여신이 9조 8000여억원이 줄었으나 지방은행은 8조8000여억원이나 늘었다. 특수은행 여신도 4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연합뉴스

지역 금융기관 예금·대출 급증

2월 말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월 말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 동향 분석 결과 금융기관 총여신은 전월(-891억원)의 감소에서 큰 폭 증가(+5858억원)로 전환했다.

예금은행의 수신은 실 상여금, 소독세 환급 등 계절요인으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1706억원→+5843억원)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정기예금 중심의 증가폭이 축소(+815억원→+16억원)됐다.

금융기관의 총여신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238억원→+1450억원)됐다.

예금은행의 여신은 기업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하면서 증가폭이 확대(+1579억원→+1972억원)됐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전월 이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감소폭은 축소(-1천341억원→-523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질 좋은 축산물 최대 40% 싸게

농협 18~19일 직거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18~19일 이틀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산지 가격지지와 소비촉진 불 조성을 위해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물 직

거래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할인품목으로는 광주·전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비롯해 오리훈제, 육가공품과 벌꿀 등이며 할인율은 20~30%이며 한우 부산물인 우족과 사골은 40%까지 할인 판매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생애 첫 주택 사면 대출규제 안받아

금감원, 다음주부터 올 말까지 DTI 미적용

다음 주부터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근간인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17일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9일 은행들에 지도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금감원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 공문을 보

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DTI 적용예외를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전월면적 60㎡·3억원 이하는 3.3%, 전월면적 60~85㎡·6억원 이하는 3.5%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환 방식은 1~3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를 내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LTV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LTV 적용 완화는 오는 6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변경 공고는 원래 40일이지만,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앞당기는 방침에 따라 20일로 단축했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시급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LTV 적용 완화 등 이번 규정 변경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사안이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이 모두 해당한다. /연합뉴스

에너지절약시설 교체 사업자 자금 지원

光銀 ‘光 팩토리’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민간 LED조명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활성화를 위해 ‘KJB 光 팩토리’ 상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대출방식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시설 교체사업을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적격 교체사업자를 선정해 설치를 완료하고, 교체사업자는 의상매출채권을 광주은행에 양도하고 자금을 지원받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민은행 광주시청 출장소 22일 개소

광주시 제2급고로 선정된 국민은행 광주시청 출장소가 22일 문을 연다. 광주시청 1층 민원실 옆에 마련된 국민은행 출장소는 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근무하게 된다.

국민은행의 개점에 따라 시청내의 유일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은행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광주시 제2급고(올해 기준 853억원)를 맡게 됐다.

지난 1969년부터 광주시 단독공고를 유지해왔던 광주은행은 지난해 광주시의 제 2급고 운영안에 따라 제 1급고(3조5629억원)만 맡게 됐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바다와 모래 그리고 튤립

튤립향기 가득한 천사섬 신안으로 오세요!

신안튤립축제장 (대광해수욕장)

고속버스 이용
목포(24km) · 무안(48km) · 지도점암선착장 · 임자선착장 · 대광해수욕장(약1시간 25분소요)
광천터미널(52km) · 무안(46km) · 지도점암선착장 · 임자선착장 · 대광해수욕장(약1시간 55분소요)
강남고속터미널 · 무안(46km) · 지도점암선착장 · 임자선착장 · 대광해수욕장(약1시간 55분소요)

자카용 이용
무안공항 IC · 무안군 현경면(24번 국도) · 지도읍 점암선착장, 임자철부선 이용
네비게이션 주소 : 전남 신안군 지도읍 김정리 1689-10

축제기간 선박 운항시간표

지도점암 ▶ 임자	07:00 - 18:30 (20분간격 수시운행)	20:00 - 22:00 (1시간 간격 야간운행)
임자 ▶ 지도점암	06:30 - 18:00 (20분간격 수시운행)	19:30 - 21:30 (1시간 간격 야간운행)

*입자매표소(농협) 061)275-7303

행사 프로그램

체험거리
튤립화분 만들기, 해변 자전거 타기, 유채꽃밭 숨마, 토피어리 공예, 아로마 향초 만들기, 팬시우드 만들기 등

볼거리
형형색색 튤립의 대향연, 튤립전시회, 구근원, 유리온실, 나무 토피어리원, 소나조각원, 해변유채꽃길, 신안 새우란 전시회 등

기타
술로우푸드점, 구근예약, 지역특산물 판매점, 카페테리아 등

THE SHINAN TULIP FESTIVAL

2013. 4. 19(금)~4. 28(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www.shinantulip.co.kr / www.신안튤립축제.kr

제6회 신안 튤립 축제
The 6th Shinan Tulip Festival